日 환대 받은 배용준 김현중

metro
메트로 2013년 10월 21일 월요일 제2434호 www.metroseoul.co.kr

4위 두산 'KS 우승 가자'

중소기업 죽이는 '중기 지원법'

총천연색 가을… 눈에도 단풍 들겠네 휴일인 20일 설악산을 찾은 탐방객들이 등산로에서 절정을 맞은 단풍을 만끽하고 있다. 이날 전국 유명 산에는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이 크게 몰려 주변 도로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다. /연합뉴스

대기업 공공공사 발주 참여 막는 'SW산업 진흥법'
국내 중기 뒷전 밀리고 외국계 IT기업만 살찌워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 발주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시킨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이 오히려 외국계 기업 활성화만 여기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올 초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IT)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국내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엉뚱하게 대기업의 빈자리를 외국계 IT기업이 독식하는 결과를 빚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맞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최문기 장관에게 "SW산업 진흥법 개정 이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 1위인 IBM, 2위인 HP, 4위인 액센츄어와 10위인 오라클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면서 "당초 중견·중소 IT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글로벌 공룡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몸집만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월 발주된 3억7000만원 규모 국민연금공단 데이터센터 설계 사업과 7월에 나온 15억원 규모의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센터 이전 컨설팅 사업도 한국IBM이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 회사를 담보로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큰 현실을 지적한다. 최저가입찰제로 인해 이윤이 적은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기관은 추가 비용 없이 설비 추가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해 심지어 적자까지 보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 이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은 자칫 대형 공공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적자를 볼 경우 기업 폐쇄라는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참여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엔 하청이라도 했는데…"

한 SW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 IT 사업을 대기업에 발주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축 이후 유지·관리와 대규모 사업 역시 담보할 수 있는 기업의 탄탄한 재무 구조 등 시스템의 안전성 때문"이라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부처 스스로 불안해하는 측면이 강해 결국 외국계 기업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은 제외하면서 IBM·HP·오라클 등 글로벌 IT기업은 왜 제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과거엔 하청업체로라도 참여해 정부 사업 참여를 기반으로 다른 민간 사업 수주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이젠 외국계 기업의 독식으로 중소형 IT기업은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체경기자 ly@metroseoul.co.kr

지난해 갈라선 부부 26.4% '20년차 이상'

'신혼이혼' 비율 첫 추월

결혼 20년차 이상의 황혼 이혼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황혼 이혼이 결혼 4년차 미만의 신혼 이혼 비율을 넘어섰다.

20일 대법원이 펴낸 2013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결혼 건수는 32만9220건으로 전년(33만1543건) 대비 0.7% 감소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2011년 11만4707건에서 지난해 11만4781건으로 0.7% 증가했다.

이혼 4쌍 중 1쌍은 동거 기간이 20년이 넘는 황혼 이혼이었고 2쌍 중 1쌍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전체 이혼 중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비율은 26.4%로 4년차 미만 부부의 24.6%를 넘어섰다. 또 황혼 이혼과 신혼 이혼 비율을 합하면 전체 이혼 사건의 절반을 넘었다.

황혼 이혼의 비중은 2006년 19.1%에서 2007년 20.1%로 20%대에 올라섰다. 이후 2008년 23.1%, 2009년 22.8%, 2010년 23.8%, 2011년 24.8%, 2012년 26.4%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를 꼽은 부부가 47.3%로 가장 많았고, 기타 20.9%, 경제 문제 12.8%, 배우자 부정 7.6%, 가족 간 불화 6.5%, 정신적·육체적 학대 4.2% 등의 순이었다.

/김근유기자 ankim@

등산길 메트로신문 아웃도어&캠핑 특별호도 함께! 메트로신문은 최적의 단풍 산행 계절을 맞아 '아웃도어&캠핑 특별판'을 발행하고 18일(금) 서울 전 지역 지하철역에 이어 19일(토)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청계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배포를 진행했다. 사진은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청 앞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서 특별판을 배포하고 있는 모습.

전교조 23일부터 법외노조

14년 만에 사무실 보증금 52억원도 반납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함에 따라 법외 노조 우려가 현실화됐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0일 "지난 16~18일 총 투표에서 조합원 5만9828명(투표율 80.96%) 중 68.59%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이고 [illegible]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 시한인 23일 법외노조를 통보받을 것이 확실시됐다. 1999년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얻은 이후 14년 만이다.

법외 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교조 노조본부와 16개 시·도 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52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올해 5억원에 달했던 사무실 비품이나 행사 지원비 등도 더는 받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지원해 온 교육활동사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illegible]

"문재인, 종북 넘어 간첩"

민주, '야당후보 비방 등' 국정원 대선 개입 트위터 글 5만여건 공개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 기간 중 트위터에서도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고 여당 후보를 찬양하는 적극적인 대선 개입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법원에 추가 확인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5만5689회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대선 개입 활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510건의 트위터 글을 작성·재생산한 것으로, 검찰이 지난 6월 기소한 게시글 1970개 전반 클릭 1711회에 비해 15.1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야당은 특히 인터넷 여론의 추세가 댓글에서 트위터로 넘어가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댓글 사건과는 규모와 파급 효과 측면 모두에서 차원이 다른 심각한 선거 개입 범죄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는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 수준이었다" 등 국정원이 문제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종북 공세를 펼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히 대한민국 대표네~ 와우, 노빠 종북 천인 잔당 절라쥐 연놈들은~" 등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역 비하 등의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

어린이와 인사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방문, 국화 정원을 둘러보던 중 관람 나온 어린이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전남 방문은 취임 후 이날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70여 명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김모씨 등 2~3명의 활동 내용만 나왔었다"며 "이번에 적어도 4~5명의 추가적인 활동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건 아직도 일부"라고 주장했다.

/정태윤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스쿨존서 5년간 어린이 37명 사망

교통사고 3047건이나 발생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6만[illegible]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563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특히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1만5136곳에 설정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3047건으로 5년간 37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8년 517건, 2009년 567건, 2010년 735건, 2011년 751건, 지난해 511건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스쿨존도 더 이상 어린이 교통사고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니냐"며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illegible]기자

"맨손으로 잡았어요" 20일 강원 광양 남대천에서 열린 2013 양양연어축제 마지막 날 행사인 연어 맨손 잡기 체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행사장에 풀어놓은 연어를 잡은 뒤 기쁜 표정으로 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가맹점 거리제한 폐지…영업지역으로 대체

동일한 브랜드 가맹점을 오픈할 때 적용됐던 거리 제한 규정이 사실상 없어진다. 대신 가맹계약서 작성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협의에 따라 영업 지역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일부 업종에 적용됐던 모범거래기준상 거리 제한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본부에 의한 인접 지역 중복 출점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커지자 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을 둔 모범거래기준을 만든 바 있다.

업종별 상위 브랜드에 적용된 모범거래기준은 편의점 250m, 제과·제빵과 커피전문점 500m, 치킨 800m, 피자 1500m 등의 거리 제한 규정을 두고 비슷한 범위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신설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영업 지역 침해 금지 의무를 명시하며 이런 규정은 의미를 잃게 됐다. 구속력이 없는 모범거래기준보다 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성훈기자 [illegible]

참새도 살찌는 가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참새들이 한 시민의 손바닥에 앉아 모이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낙찰률 99% 신의 한수?

원전 케이블 담합사들 낙찰 예정금액 대비 투찰률은 무려 99.8%

원전 케이블 사업자들의 입찰 담합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증거가 제시됐다. 원전에 필요한 전력·조명용, 제어용, 계기장비용 케이블 사업자의 투찰률이 최고 9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20일 LS전선·JS전선·대한전선·서울전선·극동전선 등 5개 업체가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신울진 1~2호기 등 8개 원전의 케이블 입찰 담합으로 717억원어치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평균 낙찰률은 99.1%에 달한다.

투찰률은 낙찰 예정 금액 대비 업체가 써낸 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투찰률이 높으면 낙찰 가능성도 커진다.

한수원의 입찰 시스템은 제품의 기초 금액을 설정한 후, 업체에 참여한 업체의 투찰가를 반영해 예정 금액을 산출하고 가장 근접한 액수를 써낸 업체가 낙찰받는 방식이다.

이 중 신고리·신월성 1~2호기의 안전등급 전력용 케이블을 수주한 LS전선이 입찰 당시 써낸 투찰가는 예정 가격인 27억9760만원보다 불과 860만원 적은 27억8900만원으로, 투찰률은 99.7%였다.

또 신고리·신월성 1~2호기의 안전등급 제어 계장용 케이블의 경우 JS전선이 예정 가격 61억1441만6000원보다 1441만6000원 낮은 61억원으로 낙찰돼 투찰률 99.8%를 기록했다.

예정 금액은 181억2929만8000원인 비안전 전력·조명용 케이블의 경우 대한전선이 180억9500만원(투찰률 99.8%)에, 예정 금액 41억2400만원의 비안전 계장용 케이블은 서울전선이 40억8400만원(투찰률 99%)에 수주했다.

신고리 3~4호기도 JS전선(낙찰가 104억27만6000원·투찰률 99.6%), LS전선(216억3605만6천원·98.4%), 서울전선(38억2961만원·96.4%)이 낙찰받았다. 투찰률은 평균 98.1%였다.

◆"한수원 담합에 모종의 역할 의심"

김 의원은 "투찰률이 100%에 가깝게 근접한 것은 경쟁사의 투찰가를 사전에 파악했다는 증거이며 한수원이 이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수원은 이런 의혹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t@metroseoul.co.kr

칠레·미국산 '천안 호두과자'

국산호두 쓰는 고속도로 휴게소 단 한 곳도 없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호두과자의 원산지를 조사한 결과 국내산 호두와 팥을 쓰는 휴게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휴게소 176곳 가운데 95%인 176곳이 호두과자의 주재료인 호두로 미국산을 썼고 나머지는 칠레산, 호주산 등을 사용했다.

◆팥은 중국·미얀마산 사용

팥은 중국산을 쓰는 곳이 154곳(92%)이었다. 중국산과 미얀마산을 함께 사용하는 휴게소가 10곳(6%)이고 3곳(2%)은 미얀마산을 썼다.

심지어 호두과자를 지역 특산품으로 내세우는 천안에 있는 휴게소에서도 국내산 주재료를 쓰지 않았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휴게소에서 파는 호두과자는 칠레산 호두와 중국산 팥이, 부산 방향 천안휴게소 제품에는 미국산 호두와 중국산 팥이 들어갔다. /김민준기자

27일까지 월드컵공원서 '서울억새축제'

서울시가 매년 가을의 낭만과 정취를 선사하는 '서울억새축제'를 27일까지 상암동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사진)에서 개최한다.

12회째를 맞은 올해는 공원 이용 시간이 2시간30분 연장돼 밤 10시까지 색색의 로맨틱한 조명으로 물든 억새밭과 가을밤을 즐길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주말에는 캐리커처 그리기, 페이스페인팅, '꽃누르미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억새를 이용한 공예품 만들기, 지도의 과거 사진전, 소원 빌기 행사는 매일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이다.

26일에는 서울아트페스티벌오케스트라, 27일에는 '아라밴드', 'ID 사운드' 등 공연팀이 참여해 억새축제의 화려한 마지막을 장식한다.

방송대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한국방송통신대(방송대)가 28일까지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 총 880명으로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등 18개 학과에서 780명, 경영대학원 8개 전공 신입생 100명을 선발한다. 접수는 방송대 홈페이지(www.knou.ac.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원광디지털대 KG패스원 협약

원광디지털대학교(www.wdu.ac.kr)가 온라인 교육 선진화와 자세대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KG패스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이러닝 시스템은 물론 학사 및 행정, 포털, 홈페이지, 그룹웨어 등의 인접 시스템까지 학교 전반의 시스템이 통합된다.

무자격 버스기사 300명 '질주'

버스 운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운전기사 300여 명이 전국에서 버스를 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버스 운전 자격증이 없는 운수 종사자는 모두 302명에 이른다.

무자격 버스기사는 경기도가 9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83명, 인천 20명, 광주 17명, 경상북도 13명 등의 순이었다.

버스 종류별로는 전세버스가 151명, 특수여객버스가 72명, 마을버스가 40명, 시내·시외버스가 39명이다.

이 의원은 "버스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스 운전자의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준기자 mjkim@

나눔장터 초만원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위아자 나눔장터'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위아자 나눔장터는 '안 쓰는 물건을 재활용해 지구온난화을 막고, 자원봉사와 기부를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를 돕는' 자선 벼룩시장이다. 개인이나 가족, 기업, 단체에서 소장품을 직접 들고 나와 판매하며,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게 된다. /뉴시스

레미콘 운송업자 1주일 휴업

수도권 레미콘 운송업자 2400명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28일부터 1주일간 동맹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도권 건설 현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는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 스포츠월드 제2체육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8일부터 1주일간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동맹 휴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8일 오후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동맹 휴업 출정식을 연다. /정윤아기자 uness@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10.21> 그림 박상철

넬슨, 트라팔가 해전 대승 후 전사

1805년 10월 21일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이끄는 함대 27척이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 33척을 기습하여 22척을 격파하고 1만4000여 명을 사상자를 내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영국의 제해권은 확고해졌고 나폴레옹은 영국 침공을 단념했다. 그러나 넬슨 제독은 프랑스 저격병의 총탄을 맞아 "신이여 감사합니다. 저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절명했다. 이 해전은 200여 년 전인 1597년 9월, 조선 명량에서 벌어진 이순신의 대승리를 상기시키는 바 있다.

왼쪽부터 제1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뽀롱뽀롱 뽀로로 '나비의 숲' '엘리노의 비밀' '파리의 도둑고양이'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조직위원회 제공

영화로 꿈꾸고 영화랑 노는 '시네마 천국'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23일 개막…25일까지 110편 무료상영

왼쪽부터 영화제 홍보대사 갈소원? 이성 구로구청장 홍보대사 임윤민군 김한기 집행위원장.

개막작으로 선정된 '표류일기'

'제1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가 23일 개막한다.

어린이와 영화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는 '디지털 구로, 영화로 꿈꾸고 영화로 놀자'라는 주제로 신도림테크노마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구민회관 등 구로구 곳곳에서 열린다.

23일 오후 5시 신도림테크노마트 그랜드볼룸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사흘간 펼쳐진다. 폐막식은 25일 오후 6시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SBS 김경일 아나운서, 신예배우 한가영과 아역배우 김수정·박희건의 사회로 진행된다. 배우 한성기, 최수종·하희라, 이미화, 조형기 등이 초청돼 레드카펫을 밟는다.

개막작은 우리나라 영화 '표류일기'가 선정됐다. 일가족이 남태평양에 표류돼 구출되는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영화제는 비경쟁 분야 국제영화제, 경쟁 분야 키즈무비 공모전, 그리고 우리가족 영화워크숍 등으로 진행된다.

비경쟁 분야 국제영화제에는 우리나라 및 프랑스, 캐나다, 중국 등 21개국에서 초청된 110여 편의 장·단편 어린이 영화가 선을 보인다. 구로아트밸리, 남현교회, 궁동사회복지관, 화원종합복지관 등에서 '뽀롱뽀롱 시리즈' '엘리노의 비밀' '오즈의 마법사' '파리의 도둑고양이' 등이 24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상영된다.

경쟁 분야 키즈무비 공모전은 국내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으로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공모를 통해 예심을 통과한 20여 편의 작품으로 진행된다. 해당 작품들은 영화제 기간 동안 구로구민회관에서 상영되며 시상식은 폐막식 때 진행된다.

우리가족 영화워크숍은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가족들이 참여해 영화제 기간 동안 기획, 촬영, 편집 등 실제 영화 제작 작업에 참가해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성된 작품은 역시 폐막식 때 상영된다.

영화제는 (사)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가 주최하고 구로구가 후원한다. 이성 구로구청장이 조직위원장, 김한기 구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김문리기자

◆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상영 일정표

상영관명	회차	시간	23일	24일	25일
테크노마트 그랜드볼룸	-	17:00	개막식 상영		
구로아트밸리	1	15:00	-	우리학교	
	2	17:30		청금쁜처	
	3	13:00		◆글로벌키즈 미국	
남현교회	1	13:00	◆뽀롱뽀롱3	뽀롱뽀롱1	청금쁜처
	2	14:30	뽀롱뽀롱4	뽀롱뽀롱2	애니키즈 단편
	3	17:00	엘리노의 비밀	블링블링	
궁동사회복지관	1	13:00	키즈무비 경쟁3	뽀롱뽀롱3	뽀롱뽀롱1
	2	15:00	◆미래고무신	뽀롱뽀롱4	뽀롱뽀롱2
	3	17:00		파리의 도둑고양이	
	4	13:00	-	멋진 인생	
화원종합복지관	1	14:00	키즈무비 경쟁1	애니키즈 단편	
	2	15:30	브라질 동화들	◆표류일기	
	3	17:00		◆글로벌키즈 중국	
	4	13:00		글로벌키즈 일본	
구로구민회관	1	13:00	오즈의 마법사	키즈무비 경쟁1	키즈무비 경쟁2
	2	15:00	멋진 인생	키즈무비 경쟁2	◆글로벌키즈 스웨덴
	3	17:00		키즈무비 경쟁3	18:00
	4	13:00	-	내 마음의 풍금	폐막식 및 상영

◆ 상영 전·후 감독과의 대화 계획 예정(홈페이지 공지 참조) ※ 전 상영관 무료 상영

'어린이 특별구'답게 꿈 펼칠 기회 만들어주고 싶어

이성 구로구청장 인터뷰

-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2010년 7월 취임 이후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제1의 공약으로 내걸고 뛰어왔다. 구립어린이집 확대, 안전조례 제정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을 선도하며 '어린이 특별구'라는 명성도 얻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린이 문화 콘텐츠가 빈약하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었다.

- 어린이를 위한 구로구의 사업을 간략히 게 소개한다면?

지난 3년간 구립 8곳을 포함해 어린이집을 63곳이나 늘리고 정원도 3200여명 확충해 어린이집 장기 대기의 문제를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 보호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달 12~13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 축제를 진행했다. 어린이들이 책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도서관 확충 사업을 펼쳤다.

현재 구로구에는 구립도서관 6곳, 사립도서관 2곳, 작은도서관 36곳 등 총 72곳의 도서관이 있는데 민선 5기에만 31곳의 도서관이 확충됐다.

산재보험 알면 선물 '펑펑'

매달 한자리 퀴즈 이벤트

식품 가공업체에서 일하는 불법 취업 외국인 '마즈' 씨는 근무 중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리송하다면 눈여겨볼 이벤트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재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산재보험 제대로 알기 퀴즈' 이벤트를 연다.

공단 페이스북 '희망누리'에서 21일부터 31일까지 참여 가능하며 1등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등 다양한 선물이 준비돼 있다.

이 행사는 12월까지 매월 진행된다.

Gente pequeña con un coraje inmenso

115cm '작은 거인'의 인생2막

metro Nicaragua

"원래 인생은 누구에게든 결코 쉽지 않아요. 키가 크거나 작은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애물은 오히려 우리의 정신과 두려움에 있을 뿐이에요."

1m15cm의 키로 세상을 호령하는 니카라과의 '작은 거인' 오를레아 산타나(47).

산타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커스 업계에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그는 자녀들에게 좀 더 자랑스러운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서커스 스타'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최근 부시장의 비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산타나. 쟁쟁한 지원자들을 제치고 당당히 합격한 그는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올렸다.

산타나는 여섯 자매 중 유일하게 왜소발육증을 앓았다.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유지만 그는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게 싫어 가족의 반대에도 서커스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어머니 덕분에 세상을 밝게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니카라과에는 약 300명의 왜소증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다수 왜소증 환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산타나는 "아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리아 브레네스 기자 · 정리=조선미 기자

스포츠★에 투자하세요

美 선수 성적따라 배당하는 이색 주식 첫 발매 · 부상당하면 '깡통' 위험

힐러리 대선 출정식?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민주당 버지니아 주지사 유세에 참석, 테리 맥컬리프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 도중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다. 붉은 정장 차림의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200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탁월한 연설을 재현해 청중들로부터 환호와 함성을 이끌어냈다. /AP 연합뉴스

미국에서 운동선수 주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펜덱스사는 미식축구 스타 애리언 포스터(27·사진)의 수입과 연동된 주식을 4~6주 후 판매할 예정이다. 펜덱스측은 최근 증권 당국에 주식 상품 판매 관련 신고를 마쳤다.

과거 미국에서 야구나 농구 등의 경기 결과와 연동된 복권은 있었다. 하지만 운동선수에게 직접 투자하는 금융 상품이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터 주식의 한 주당 가격은 10달러(약 1만600원)로 100만 주가량 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포스터는 펜덱스사로부터 1000만 달러를 투자받게 된다. 대신 포스터는 향후 전체 수입의 20%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포스터 주식의 최대 변수는 포스터의 경기 성적이다. 그의 경기 성적에 따라 연봉과 광고 횟수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포스터는 뛰어난 실력으로 지난 5년 동안 400억원대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거물급 선수로 우량주다. 하지만 일반 기업 주식과 달리 운동선수 주식은 선수가 부상당할 경우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적지 않다.

일부 주식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운동선수 주식이 일반 주식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터치다운 때마다 요가 자세를 취하는 등 개성 만점 세리머니를 펼치고, 시를 사랑하는 남다른 운동선수로 널리 알려져 누구에게나 인기가 높은 포스터. 앞으로 포스터의 경기는 주식으로 짭짤한 소득을 올리려는 그의 주주들까지 합세해 뜨거운 응원 열기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조선미 기자 seonmi@metroseoul.co.kr

'타이타닉호 바이올린' 경매 유품중 최고가 15억에 낙찰

일명 '타이타닉호 바이올린'이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가에 새 주인을 맞았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이 바이올린 최초 경매가는 50유로에서 출발했으나 전화 입찰자 4명 간 경쟁이 달아오르며 90만 파운드(약 15억4668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낙찰자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바이올린은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밴드 리더인 월리스 하틀리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틀리는 1500여 명의 승객과 함께 익사했으나 바이올린은 가죽 상자 안에 보관된 상태로 하틀리의 몸에 묶인 채 회수됐다.

/이국명 기자 kmlee@

market index <전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52.40 (+11.79)	525.69 (+4.17)	2.92 (-0.03)	1062.00 (-1.00)

뉴스&뉴스

삼성전자 44주년 사은축제

● 삼성전자가 창립 44주년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 큰 이벤트를 개최한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삼성전자 S 골드러시 창립 44주년 전 국민 감사대축제'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삼성전자 고객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스마트TV·냉장고·김치냉장고·세탁기·PC·디지털카메라 등을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우선 삼성전자 전문 매장인 '디지털프라자'에서 멤버십 회원 가입 후 주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U 포인트 적립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KB·농협 "우리투증 잡아라"

● KB금융과 농협금융이 최대 2조원대로 올 하반기 인수·합병(M&A) 시장의 대어로 떠오른 우리투자증권 예비 입찰에 나선다. 대신증권과 사모펀드인 파인스트리트까지 가세해 우투를 둘러싼 치열한 4파전이 예고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1일 우투증권과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파이낸셜, 우리F&I 등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에 대한 예비 입찰을 마감한다. /김형준기자

로또복권 제5??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	3	17	20	31	44	40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9?5,?61,550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43,5?5,585
3등	5개 숫자 일치	1,118,054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6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진 편집인 김광혁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4-2100
독자센터 02)721-9??5
2005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

잘팔리는 수입차 '마케팅의 힘'

닛산 SUV '쥬크' 홍대앞 팝업스토어 열고 '미니'는 차주 초청 탄생 54주년 생일파티

수입차가 잘 팔리는 이유는 단지 상품성이 우수하기 때문일까. 주요 브랜드의 진화한 마케팅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수입차 업체들이 한국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에 힘입어 한국 내 판매량도 증가세를 걷고 있다.

한국닛산은 소형 SUV '쥬크' 출시를 기념해 젊음의 거리 서울 홍대에 특별 팝업스토어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홍대 상상마당 맞은편에 마련된 쥬크 팝업스토어는 하루에 3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다. 닛산은 매일 러키 크레인, 스테프와의 다트 배틀 등 게임을 진행해 반엔드러 호텔 숙박권·스파 이용권, 보스 IE2 오디오 헤드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지난 19일에는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과 팔씨름 대결을 펼치는 '추성훈을 이겨라' 행사(사진)를 열어 우승자 1인에게 애플 아이패드 미니, 2~4등에게 500GB 외장하드를 선물했다.

한국닛산은 또 27일까지 홈페이지(www.nissan.co.kr)에서 '엠넷(Mnet)과 함께하는 닛산 쥬크 출시 기념, 쥬크 만나고 MAMA 가자' 이벤트를 연다. 닛산 후원으로 홍콩에서 개최되는 2013 MAMA를 구경할 수 있는 5명(2박3일) 동(반 1인)을 선정한다.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는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생일잔치를 했다. 탄생 54주년 기념 '맛 노믹' 파티에 미니 오너를 포함해 11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

참가자들은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소울 다이브·더블 케이 등 인기 힙합 그룹의 공연과 디제잉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을 즐겼다.

BMW는 미래 고객에게 주자하는 장기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양대 글로벌 기업센터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공동 주관하는 전국 대학(원)생 기술 사업화 경진대회 '프롬 아이디어 투 스타트업'을 후원한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 김효준 이사장은 "창업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한 취지"라며 "전담 멘토를 통해 실제 사업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등산장비 반값쇼핑 하세요 20일 서울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가을 맞이 '등산대전'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이마트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등산 관련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연합뉴스

유통 총수 3인 국감장 뜰까

정용진·신동빈·이부진 증인·참고인 자격 호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유통업계 총수들이 다음달 1일 상임위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회장은 국감 전 증인으로 포함됐지만 허인철 이마트 대표가 대리 출석한 것으로 결론 난 바 있다. 그러나 한 자례 상임위에서 허 대표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정 부회장이 증인으로 불려가게 됐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산업위 증인 출석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국감 때 증인 출석에 불응해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이 사장은 오는 2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 면세점 독과점 운영과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김태균기자 ksacc@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폭 절반으로 '뚝'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가입자가 분기당 평균 254만 명씩 늘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분기당 135만 명 수준에 그쳤다. 가입자 증가폭이 지난해의 53.1%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7~8월 두 달간 늘어난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76만 명에 불과해 3분기 스마트폰 가입자 수 증가폭은 100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가입자 중 스마트폰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에는 분기 평균 4.5%포인트씩 늘었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사이에는 1.9%포인트 증가했을 뿐이다.

김민지 기자의 똔순이 주부 경제학

'뽁뽁이' 난방비 10% 절감효과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기온 탓에 옷자락이 제법 두터워졌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주부들은 난방비 걱정에 한숨만 나온다. '웅~' 하고 울리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에 난방비 올라가는 소리만 귓가에 맴돈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집을 비울 때 대부분은 난방비 절약을 위해 보일러 전원을 끄기 마련이다. 하지만 오히려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고 하니 아뿔싸다. 2~3시간 짧게 외출할 때는 실내 온도를 어느 정도 낮춰도 전원은 끄지 않는 게 좋다. 보일러를 재가동해 일정 온도까지 만들려면 그만큼 난방비가 더 소모된다. 특히 외출 모드로 맞춰놓으면 보일러 동파 방지도 된다.

택배 물건을 포장할 때 쓰는 에어캡, 일명 '뽁뽁이'도 겨울철에는 효과 만점인 난방기구로 변신한다. 분무기로 창문에 물을 촉촉하게 뿌린 다음 창문에 맞춰 뽁뽁이를 붙이면 끝. 창과 뽁뽁이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돼 열전도를 감소시켜 난방 효율을 높여준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난방비 10%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한 방법은 문풍지다. 아무리 난방기구를 강하게 켜도 온도가 내려가는 것은 대부분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이다. 문풍지로 창문 틈이나 창으로 빠져나가는 열 손실만 잘 막아도 난방비를 최대 34%까지 아낄 수 있다.

바닥에 러그나 카펫만 깔아도 체감온도를 2~3도 올릴 수 있다. /minji@

뉴스 & 뉴스

부실운영 보험대리점 6곳 금감원, 등록취소 중징계

● 금융감독원이 부실 운영으로 적발된 보험대리점과 신협 단위조합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종합검사에서 사람예셋 보험대리점 등 6개사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돼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받았다.

사람예셋·예담·파이스트 보험대리점은 수수료 수익을 내고자 대리점 설계사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고액의 보험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약하는 자기계약 수법으로 불건전 영업 행위를 했다.

에프엔스타즈보험대리점과 퍼플라이프보험대리점은 등록되지 않은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아 과태료 및 기관 경고, 담당임원 직무 정지 및 문책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김민지기자

동양증권 자산 6조대 감소

● 유동성 위기로 계열사 5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사태로 인해 계열사인 동양증권의 총 자산이 최근 석 달간 6조5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동양증권의 총 자산은 7조4572억원으로 지난 6월 말(14조365억원)보다 6조5793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말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대규모 자금이 인출된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

자산 가운데 현금 및 예치금이 6조2349억원에서 2조8273억원으로 3조4076억원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김현정기자

'엔씨의 속살' 보여준 파격 채용쇼

판교 R&D센터서 열린 취업설명회 '드림 업! NC' 화제

"왜 엔씨소프트에서 일하시죠?"

공채 예비 지원자의 질문이 꽤 도발적이다. 보통 취업설명회에서는 회사 측 담당자가 "우린 이런 인재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이곳에서는 반대다.

질문을 받은 현직 종사자는 "스타 개발자와 함께 배를 타고 더 멋지고 넓은 곳으로 가고 싶었다. 입사할 때 600명이었던 직원이 2200명으로 늘어나 뿌듯하다"고 화답했다.

◆구직자 본사 초청, 스킨십 채용

국내 대표 온라인게임 업체 엔씨소프트는 지난 20일 오후 성남 삼평동 판교 R&D센터에서 채용설명회 '드림 업! NC'를 개최했다.

통상 유명 기업은 대학이 진행하는 취업설명회에 참여해 원하는 인재상을 설명하는 선에서 그치기 일쑤지만 엔씨는 취업을 희망하는 500여 명의 구직자를 초청해 자사의 '알몸'을 그대로 보여줬다.

우선 엔씨는 판교 사옥의 곳곳을 소개하는 사내 투어를 진행했다. 구직자들은 다른 회사에서 보기 힘든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을 보면서 전의(?)를 불태웠다.

특히 먼저 입사한 선배들과의 간담회는 엔씨를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됐다. 직무별로 마련된 미팅룸에서는 해당 업무 담당자 4~5명이 궁금증을 풀어줬다.

총무 파트에 큰 관심을 보인 서지곤(26)씨가 "엔씨가 만든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총무직을 희망할 때 이를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느냐"고 묻자 총무부 직원은 "게임을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을 돕는 게 우리 일인 만큼 게임 관련 이해도가 높다면 유리하다. 물론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동료를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환영"이라고 설명했다.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엔씨소프트의 직원 전용 피트니스센터를 구경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제공

서씨는 "적극적으로 인재를 모집하려는 엔씨의 의지가 피부에 와 닿는다. 인터넷이나 취업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선배들이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윤진원 홍보실장은 "IT기업은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진정성 있는 사람을 뽑으려면 기업 역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판교=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작은 회사가 만든 '현대차 광고' 현대자동차그룹이 일감 나누기 지원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소규모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에어'를 선정한 후 처음 제작된 새로운 그룹 이미지 광고가 지난 19일부터 첫 방영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100:1 뚫어야 '억대연봉' 은행원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 은행원이 되는 길은 올해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는 400명 가까이 늘었지만, 지원자는 3만명 넘게 더 몰려 10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뚫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220명을 뽑는 기업은행 하반기 공채에는 2만1000명이 지원해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우리은행도 200명 채용에 1만8000명이 몰려 경쟁률이 90대 1을 보였다.

160여 명을 뽑는 하나은행 역시 1만340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34대 1에 이르고, 200명을 채용하는 국민은행도 1만680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83대 1에 달한다. 200명 채용 예정인 신한은행에도 1만5000명이 지원해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기업·농협·산업·신한·외환·우리·하나은행은 연간 채용 인력을 지난해 1723명에서 올해 2106명(농협은행 하반기 공채 제외)으로 383명 늘렸지만 이들 8개 은행 지원자는 3만800명이 늘어난 17만6800명에 달한다.

/서국정기자 kyt@

오! 3D안경 필요없는 BC카드 입체광고

BC카드가 안경을 쓰지 않고도 손에 잡힐 듯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3D 입체 영상을 도입한 광고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BC카드의 특화 포인트 카드인 '오! 포인트(Oh! point)'의 이번 광고 영상은 오! 포인트를 상징하는 빨간색 풍선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도록 표현했다.

3D 안경을 착용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디스플레이 자체에 안경 효과를 적용한 기술을 활용했다. BC카드 측은 "카드의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강조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광고는 지하철 신분당선 강남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41개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이 밖에 BC카드는 연말까지 오! 포인트의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오! 포인트 카드의 모든 고객에게 11번가의 5000원 할인쿠폰 패키지를 증정하고 매월 선착순 200명에게 장바구니 3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오! 포인트 1000점을 사용하면 본인과 동반 1인에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구매 기회를 주고 탐앤탐스 매장에서 오! 포인트 가입 시 아메리카노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다. /김승호기자

이종석·하연수 뜬 '놀라운 OK캐쉬백'

가지고 놀던 장난감 자가 눈앞에서 실제 자동차로 변신한다? 계란을 깼더니 닭이 튀어나온다?

상상만 해도 즐거워지는 허리운 놀라운 상황을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이종석과 하연수가 전해준다면 어떨까?

SK플래닛 OK캐쉬백이 지난 12일 새롭게 선보인 광고 캠페인은 OK캐쉬백의 새로운 모델이 된 이종석과 하연수가 '자동차' 편과 '달걀' 편으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평범 보면 지점로 연기에 미소가 번도는 이 유쾌한 광고는 OK캐쉬백이 모바일을 만나 새롭게 달라지는 놀라움과 즐거움을 재미있게 담고 있다.

80세도 가입되는 실버암보험

라이나 무배당상품 리뉴얼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가입 나이의 제한 또는 인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했다.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 질환이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진단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문의 080)951-8585

주상복합 인기 부활하나

올들어 공급물량 5년새 최대 …판교·위례 등 청약 열기 뜨거워

판교·위례 등지에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인기몰이에 나서며 과거 주상복합의 인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건설사들이 내놓는 주상복합 공급 물량은 5년 새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주상복합이 대형 평형 위주의 비싼 분양가, 통풍·환기의 어려움 등의 단점을 보완해 실수요자의 관심을 되돌리고 있지만 입지적 장점이 큰 곳 위주로 회복세가 국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주상복합 물량은 1만4896가구로, 이 중 51%인 7633가구가 4분기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서울(6487가구)·경기(4860가구)·부산(1762가구)·전북(513가구)·울산(476가구)·전남(440가구)·충남(160가구) 순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의 최대 규모다. 금융위기 이후 공급 가뭄을 겪던 주상복합 시장이 예전 수준을 회복한 셈이다. 특히 서울·경기를 합한 물량(1만1547가구)은 지난 2004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강동·금천·송파 일대 복합단지 개발 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가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상복합은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저렴한 분양 가격, 아파트와 닮은 평면 구성 등을 내세워 실수요자를 공략한다.

주상복합의 이 같은 변신에 지난 6월 분양에 나선 판교신도시의 '판교알파리움'은 올해 공급된 전체 물량 중에서 청약 경쟁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 위례 아이파크의 분양도 호조를 보이면서 내년 하반기 이후 1300여 가구의 주상복합 분양이 이뤄질 위례신도시 주상복합용지 8개 블록도 이날 전량 매각됐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역시 입지에 따라 차별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판교와 위례의 주상복합은 입지와 분양가 측면의 장점이 컸다"며 "주상복합 시장의 침체가 오래 지속돼 다른 지역의 주상복합 분양은 아직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철기자 hjkim@metroseoul.co.kr

SF영화 같은 '갤럭시 기어 패션' 플래시몹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기어'와 제일모직 컨템포러리 감성 브랜드 비이커는 지난 19일 서울 비이커 플래그십 스토어 한남점 주변에서 패션 플래시몹을 열었다. /삼성전자 제공

비은퇴자 "노후자금 40%만 마련"

KB, 24~58세 성인 설문 전년대비 6%포인트 줄어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가 준비해놓은 노후 자금이 필요분의 40%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전국 24~58세 성인 292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KB노후준비지수'는 50.3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노후 자금 관련한 재무준비지수는 40.3이었다.

이는 노후 준비 활동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은퇴 시점에 월 평균 노후 생활비(227만원)의 40.3%(91만원)만이 준비될 것이란 의미다. 이는 지난해(46.3) 대비 하락한 수준이다.

경영연구소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가계의 일상 소비 생활과 함께 노후 준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비은퇴 가구 간 노후 준비 양극화도 뚜렷했다.

재무준비지수 90 이상인 비은퇴 가구는 전체의 1.7%에 불과했고, 나머지 중 31.1%는 재무준비지수 10 미만을 기록했다.

또 혼인 유무로 볼 때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노후 대비가 미흡했다.

부부 가구와 독신 가구의 재무준비지수는 각각 35.1, 58.2이며 부부 가구 중에서 유자녀 가구(33.1)가 무자녀 가구(55.8)보다 22.7포인트 낮았다. 유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본인 노후 준비가 취약한 것으로 해석됐다.

/송현의기자

제주영어도시에 삼정 G에듀 분양

삼정 G에듀가 제주도 내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최대 규모인 총 701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분양한다. 최근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제주 삼정 G에듀는 전용면적 55㎡, 74㎡, 84㎡로 구성되며 모든 세대가 일자형 남향으로 배치되고 4베이 설계를 적용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내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노래방, 옥상 바비큐파티장, 북카페, 게스트룸, 독서실 등 2000여 평 규모의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에 17개의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단지에서 KIS제주, 브랭섬홀아시아(BHA),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 등 제주에 위치한 국제학교까지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또 20여 개의 공원이 단지 안에 조성되고 곶자왈도립공원이 단지를 둘러싸는 등 녹지 환경이 우수하다.

이달 31일 모델하우스가 개관을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도 홍보관이 마련돼 있다.

시공은 삼정기업이 맡는다.

문의: 제주 모델하우스(064-794-1111), 서울 홍보관(02-2052-1011)

/유현희기자

미룰 수 없는 공기업 개혁

뉴스룸에서
김 하 성
<편집국 국장>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국정감사가 2주째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는 초반부터 정책 국감을 내세웠지만 상임위마다 쟁점 사항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만 벌였을 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나마 소득이라면 여야가 한목소리로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점이다.

이번 국감 자료에서 드러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실태는 가히 가관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총 11조원의 부채를 떠안고도 지난 4년 새 직원들의 성과급을 225%나 올렸다. 산업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은 부채가 173조원임에도 3년간 2조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비리 온상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임직원 357명 전원에게 상품권 200만원, 여행비 보조 100만원씩 등 11억원을 펑펑 썼다.

한술 더 떠 신고리 원전 3·4호기에 납품된 불량 케이블은 사전 시험 조건까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불량 케이블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데 1년 이상 걸리고 별도 3조7000억원가량 또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뿐인가. 금융 공기업인 농협은 최근 6년간 지난 적자금으로 물 쓰듯 1600억원을 지원하고 전 직원에게 스마트 기기 구입비로 1인당 96만원, 모두 196억원을 지원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오죽하면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이 아니라 '신도 놀란 직장'이라는 비아냥을 받겠는가.

공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공기관 부채는 내년 말 543조원으로 올해보다 23조원이나 늘어난다. 공기업 부채 증가로 국가 부채 또한 올해 말 1000조원을 돌파,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니 더욱 걱정이다.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공공 부문 부실에서 초래됐고 사상 초유의 부도위기 사태를 맞아 실업률은 겪고 있는 미국의 현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비리 척결은 물론 공기업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다.

'최고윤리책임자' CEO가 필요한 한국

정론직설
유 병 팔
<언론인>

재벌 총수들이 잇따라 구속돼 가뜩이나 힘겨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구속 수감 중이다. 여기에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이어 전경련 회장을 지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마저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 같다. 현 회장은 이미 국감장에 나와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모두 창업 2·3세들이다.

재벌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생산의 주역이자 경제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지금까지는 비교적 관대했다. 특히 '유전무죄'의 상징처럼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관행처럼 되풀이됐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재벌 비리를 근절시키고 도덕성까지 물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강하다.

때문에 세습 경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재벌의 악행이 자리 잡기 어렵게 됐다. 재벌 비리는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부의 불법 상속을 중심으로 한 탈세를 비롯해 비자금 조성, 횡령,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 일감 몰아주기, 뇌물 공여까지.

이러한 과정에서 세습 경영 재벌 총수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동되고 있지만 성과는 아주 미약하다. 또한 사외이사제를 도입해도 견제 기능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내세워 기업의 사기저하를 운운하면서 반발(?)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다.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업이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자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바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윤리경영이 절실하다. 윤리경영은 기업에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벡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벡텔의 낸시 맥크레디 히긴스 부사장은 "벡텔의 폭발적 성장은 반부패 윤리 시스템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바로 기업에 활력을 배가하는 길이 윤리경영이라는 것이다. 히긴스 부사장은 벡텔의 윤리 준법 감시관 역할을 맡은 '최고윤리책임자(Chief Ethics Officer)'다.

또한 지난주 방한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 아서디리틀의 이그나시오 빌비스 회장은 "윤리경영 교육을 못 받은 세습 경영이 동양그룹 같은 사태를 낳았다"고 일침했다. 하루 빨리 우리 기업도 윤리경영 운동에 불을 댕겨야 한다.

포토프리즘

패셔니스타 총출동

'2014 S/S 서울패션위크'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IFC몰에서 막을 올렸다.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서울패션위크에는 국내 최정상급 디자이너들이 총출동하며 올해 행사는 23일까지 계속된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한은 총재의 누워 침 뱉기

기자수첩
김 민 지
<경제산업부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식당가에서 열린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전체 한은 직원을 폄하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김 총재는 이 자리에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중앙은행에 감독 기능을 주면 망한다. 금융감독 기능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하고 실력이 있는 곳에 가야 한다. 한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한은은 공부해야 한다" 등 폄하 발언을 했다.

그의 발언에 대해 많은 한은 직원들은 "외국에서 공개적으로 직원들을 무시했다"며 단단히 화가 났다. 한은 노조는 "조직의 수장이 직원을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자가부정"이라며 "그가 중앙은행 총재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난 18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총재의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은 고참급 직원들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한은 직원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여있는 상태다.

이번 '폄하론' 발언은 제 얼굴에 침 뱉기 격이 됐다. 그의 말처럼 한은 직원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는 수장인 그의 책임인 것이다. 신중치 못한 그의 발언은 임기 내내 직원과 소통 단절로 이어졌다.

김 총재는 내년 3월 말로 임기가 끝난다. 앞으로 두고두고 '구설거리'를 남겼다는 점에서 씁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임기를 마친 이후 그의 사례가 향후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사뭇 궁금해진다.

랑탱이 묻지 않았던 것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돈을 이길 수 있을까? 자본이 약속하는 욕망을 거부할 방법이 있긴 한 걸까?

"타고난 아름다움과 수애함이야말로 하늘에 내린 가장 희귀한 보석이라오." 랑탱은 가짜 보석 앞에서 기뻐하는 아내에게 점잖게 타이른다. 하지만 아내는 "전 보석이 너무 좋아요"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어느 겨울밤 그녀는 폐렴으로 세상을 뜬다.

"1만5000프랑 정도 나갑니다. 어떻게 입수하셨는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내와의 사별 이후 생활이 곤궁해진 랑탱은 가짜 보석 가운데 제법 그럴싸한 것을 골라 보석상으로 가져갔다가 충격을 받는다. 잘해봐야 8프랑 정도나 받겠지 했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인 세상이 열린 것이었다. 당연히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아내가 이 보석들을 어떻게 갖게 된 거야? 모파상의 단편 '보석'의 반전 대목이다.

랑탱은 보석이 진짜로 판명됐을 때 좋았을까, 싫었을까? 그는 '다시 생각할 겨를을 갖지 않으려고' 보석가게로 도로 들어가 보석을 죄다 판다. 무려 19만6000프랑이라는 거액이 그의 손에 쥐어졌다. 보석상 주인은 "본래 임자가 저축한 돈을 몽땅 보석에 투자했나 보군요"라고 능청맞게 말하자, 랑탱은 진지하게 대답한다. "돈을 모으는 덴 아마 여밤벅도 괜찮을 겁니다." 그의 삶은 곤충쟁감칭해진다. 정숙한 여자와 재혼을 했지만 이전의 행복했던 시절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녀가 성품이 좀 까다로워 랑탱의 삶이 고통스러워졌다고 하나, 그건 행실 빈둥한 여자와의 삶이 이제는 그에게 맞지 않는 옷이 돼버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랑탱의 삶은 이미 부패해버렸다.

무엇이 진정한 보석인지 안다고 믿었던 랑탱의 윤리는 보석의 가격 앞에서 순식간에 해체돼버린다. 보다 많은 소유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부르주아의 유혹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이다. 이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 "어떻게 입수했는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습니까?" 랑탱이 묻기를 피했던 생각이다.

부의 기원과 자본 축적의 과정에 눈감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와 교육이다. 자본과 욕망이 윤리를 붕괴시키는 사작이 여기서 비롯된다. 랑탱의 아내에게 보석을 준 자들은 어떻게 그토록 부자가 됐을까? 이 물음을 불온시하는 사회는 결국 랑탱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제대로 던지는 질문은 이미 답이 된다.

Musical
아가씨와 건달들
IN 1929 NEW YORK
11.1 OPEN BBC 씨어터
럭키찬스 최대 30% 할인
김다현 ♠ 류수영 ♠ 송원근 ◆ 김지우 ♥ 이하늬 ♣ 박준규 ♣ 이율 ◆ 신영숙 ◆ 구원영 ♥ 연출 이지나 www.guysanddolls.co.kr

열차타고 가는 섬 산행의 낭만 '무의도'

공항철도로 서울에서 1시간…주말바다열차 이용하면 편리

인천에 위치한 '무의도'는 열차를 타고 가는 섬 산행지로 유명하다.

무의도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을 운행하는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1시간이면 닿는데, 주말에는 무의도행 배가 출발하는 잠진도 선착장 입구의 용유임시역까지 운행하는 주말 서해바다열차가 운행돼 무의도 산행이 더욱 편리하다.

여의도 크기 만한 무의도는 섬 모양이 무희의 옷자락 아름다워 '무의(舞衣)'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나개와 실미 등 고운 모래를 가진 해수욕장 두 곳이 있어 섬 여행자로도 인기다.

큰무리 선착장에서 시작해 당산을 거쳐 국사봉(230m)~호룡곡산(246m)~광명항을 잇는 종주 등산로 산행은 섬산행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총 산행 시간은 3~4시간이 소요된다. 맑은 날에는 태안반도까지 조망이 가능하고, 무의도에서 1박을 할 계획이라면 일몰 산행으로도 손색이 없다.

호룡곡산 정상에 오른 뒤 광명항으로 하산해 무의도의 414m 나리로 연결된 소무의도로 들어가 섬을 한 바퀴 도는 30~40분 코스의 무의바다누리길을 돌아봐도 좋다.

호룡곡산에서 하나개해수욕장으로 하산해 '천국의 계단' '칼잡이 오수정' 등 드라마 촬영 세트장도 구경할 수 있다.

탁 트인 바다 전망은 호룡곡산에서 국사봉으로 산행해야 제대로 볼 수 있다. 큰무리 선착장에서 마을버스(1000원)를 타고 광명항으로 간 뒤 광명항~호룡곡산~국사봉~당산~큰무리 선착장 순으로 산행하면 된다.

◆가족 나들이·연인 데이트는 실미도

만약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이나 데이트를 즐기려는 연인이라면 실미도를 추천한다.

큰무리 선착장에서 마을버스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실미해변 앞에 있는 실미도는 북파 공작원을 훈련시키던 '실미도 사건'의 현장이자 영화 '실미도'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썰물 때면 무의도 실미해변에서 실미도까지 길이 200m 정도의 모래와 갯벌이 드러나 징검다리처럼 놓인 돌 위를 걸어 두 섬을 오갈 수 있는데, 최근 방영된 드라마 '스캔들'에서 무의도(실미해변)와 실미도로 이어지는 바닷길이 소개된 바 있다.

실미도 도착 후 10여 분 정도 능선길을 따라 섬 반대편으로 가면 북파 공작원들의 훈련 장소였던 아담한 해변이 나온다. 막사 등 옛 흔적은 사라졌지만 해변 오른쪽 기암에 올라 주변을 바라보며 병사들의 훈련 모습을 떠올려보는 것도 의미 있다. /박지원기자

◆가는 길

① 공항철도 주말 서해바다열차 이용 용유임시역 하차 → 도보 15분 → 잠진도 선착장 → 배로 5분 → 무의도

※ 주말 서해바다열차: 11월 24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운행. 서울역 매시 39분 출발(07:39~17:39) 문의: 032)745-7788

② 인천공항역 → 인천공항 3층 7번 승강장 222, 2-1번 버스 → 잠진도 선착장 → 무의도

※ 선박 왕복 운임: 대인 3000원·소인 2100원, 무의도 섬 순회버스 1000원. 문의: 032)751-3354

가을 러너 '물보다 포카리스웨트'

땀과 비슷한 전해질 성분 흡수빨라 몸 회복 효과적

가을을 맞아 각종 마라톤 대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라토너들 사이에서 수분 보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수분 보충을 도와주는 동아오츠카의 포카리스웨트가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마라톤 도중이나 전후 포카리스웨트 섭취는 몸으로부터 손실되는 수분과 전해질을 빠른 시간 내에 보충할 수 있어 체내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라톤과 같은 격렬한 운동 후에는 체내에서 소변으로 배설되거나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 손실량이 많아 단순히 물만 마시면 혈액 속의 전해질 농도가 낮아지고 자칫 저나트륨혈증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땀과 함께 방출되는 칼슘, 마그네슘 등은 근육의 피로를 유발시켜 다리에 쥐가 나는 등의 근육 경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때에 적당한 이온 섭취는 체내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포카리스웨트는 나트륨, 염소, 칼륨 등 전해질이 땀의 농도와 가장 비슷하게 함유돼 있어 체내 흡수속도를 빠르게 하고 단 성분이 몸의 회복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박지원기자

핼러윈 파티 주인공 되기 "어렵지 않네"

미국의 연례 풍속 행사인 핼러윈(매년 10월 31일) 시즌을 맞아 유통업계가 분주하다.

크리스피크림도넛은 31일 오후 6~10시까지 종로점에서 '핼러윈 파티'를 열고 고객들을 무료로 초청한다.

미국 본고장에서 열리는 핼러윈데이의 분위기를 캐주얼하게 구현하며, 총 3차에 걸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선별한다.

다이소는 핼러윈 파티용품을 선보였다. 마녀 모자와 망토 등 분장용품과 사탕·과자를 담을 수 있는 호박 가방 등 파티용품 28종이다. 각 용품은 200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박지원기자

교실 밖 살아있는 과학 수업 '흥미진진'

청소년 위한 행사 줄이어

"세계는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서 창의성 기반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런던 비즈니스스쿨의 게리 하멜 교수의 말이다.

최근 국내 교육계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과학·수학 교육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입식 교육 방식을 대신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과학 행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로레알코리아는 '소녀, 과학자를 만나다'라는 주제 아래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사이언스오픈랩'을 진행 중이다. 행사는 10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서울·대전 등 총 12개 대학에서 열리며, 학생들은 선배 과학자들과 연구 실습을 하며 향후 진로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받게 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26일 '과학자들의 작은 강연회 10월의 하늘'을 개최한다.

현직 과학자·공학자들이 전국 40여 개 도서관을 찾아가 청소년들에게 강연을 펼친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고려대학교는 28~29일 전국 중고생·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과학콘서트'를 연다.

올해 노벨상 화학상 수상자인 아리에 와르셸 교수를 포함해 아다 요나트(2009년 화학상), 앤드루 파이어(2006년 생리의학상), 리처드 로버츠(1993년 생리의학상) 등 역대 노벨상 수상자 4명이 강연을 진행한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과학 꿈나무들을 위한 '토크콘서트'와 '멘토링'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뜨거운 것이 좋아! 패딩 등 방한용품 매출 급증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방한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20일 G마켓에 따르면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진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털 달린 여성용 코트와 패딩 점퍼가 각각 167%, 52% 매출이 늘었다. 운동자와 단열 에어캡은 162% 많이 팔렸다.

이 기간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진행되면서 옥션에서는 핫팩과 손난로가 지난해 대비 690% 증가했으나, 11번가에서도 이 기간 발열 내의·온수 매트 등의 매출이 80%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겨울이 길고 추울 것으로 예상돼 예년보다 월동 상품 구매가 일찍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유명 영화배우 C씨의 관절 및 인대질환 탈출기

지난 목요일 개봉한 영화의 주연배우인 C씨는 관절 팔꿈치 및 무릎 인대 질환으로 여러 병원에서 인대 증식 주사·체외 충격파 치료·줄기세포 주사·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통해 치료받았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질환이 자주 재발해 병원 측에서 수술을 권유했으나 C씨는 수술이 두렵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고자 강남 초이스 병원을 방문했다.

담당 주치의인 조성태 강남 초이스 병원장은 C씨의 질환을 주관절 내측 건초염 및 척골 신경염,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만성 손상 및 인대 염좌로 진단했다. 이후 조 병원장은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와 부종 감소 및 염증 치료를 위한 특수 인대 치료 주사로 C씨를 치료했으며 C씨의 상태는 호전되면서 통증 역시 감소했다.

3년 전부터 강남 초이스 병원에서 시행됐던 이런 인대·신경 치료는 기존의 인대 증식 및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치료법으로 일반적인 인대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질환, 신경 및 관절염까지 치료하는 비수술 치료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강남 초이스 병원의 인대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가격이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줄기세포 주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진화하는 신개념 인대 및 관절 DNA 주사 '비수술 치료법'으로 환자 부담 줄어
어깨·팔꿈치·손목·발목 등 인대질환 및 건초염 및 관절염 등 5분이면 치료 끝!!

◆환자 맞춤형 치료를 통해 근본적인 치료 가능해

주사 치료 후 C씨는 재활을 위해 강남 초이스 병원의 핵심 치료인 도수 운동 재활 치료 센터에서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 치료, 근육 강화 운동 치료를 주 2회씩 1개월간 받았으며 현재는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는 척추 관절 치료 병원으로 알려진 강남 초이스 병원은 이처럼 내원 환자의 진행에 따라 인대 증식 또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 후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치료를 돕기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남 초이스 병원은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을 목적으로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환자 1명을 전담하는 통합 진단 치료 시스템을 운영해 치료를 선진화·체계화시켰다.

현재 강남 초이스 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의 본원 외에도 역삼역 입구에서 직장인들 및 중장년층들을 위한 목, 허리 및 어깨 통증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 측만증 등) 전문 치료 클리닉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 3차원 생역학 디스크 및 관절 치료 센터, 연골 및 인대 치료 및 재생센터를 신설해 시대의 흐름인 간단하고 효과가 빠른 비수술 척추 관절 치료를 시행 중이다.

조 병원장은 "명예와 양심을 걸고 진료를 하며 첨단의 장비로 합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875-2200 /황재용기자

증상 체크·치료과정 기록 '손안의 닥터'

다양한 '건강 앱' 스마트하게 활용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자 3000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 특히 건강상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 앱을 잘 활용하면 스마트폰을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최근 맞춤형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폰 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문의가 직접 각종 질병 정보를 전달하는 위사이트인 메디컬티비는 '메디컬티비' 앱을 공개했다. 앱은 질병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의 메디컬티비 웹·모바일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닥터 앱은 자가 진단 테스트를 통해 건강의 이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일 건강 정보가 업데이트된다. 또 여성 다이어트에 유용한 '살빼는 법 2', 노년층 스트레칭을 위한 '핑크 스트레칭', 직장인 건강을 위한 '퍼스널 트레이닝' 등도 인기 있는 앱이다.

◆당뇨병과 암까지 관리 가능

당뇨와 암 같은 중증 질환을 관리하는 앱도 눈길을 끈다.

한국릴리가 제공하는 '지피지기 암치료'와 '당뇨길잡이'가 단연 인기다. 지피지기 암치료는 ▲암 정보 ▲나의 치료 ▲힐링 공간 ▲정부 정책과 FAQ 등 4가지 메뉴로 구성해 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뿐 아니라 e메일을 통해 추가 질문도 가능하다. 나의 치료 메뉴에서는 자신이 치료받는 약물을 선택해 치료 일정을 확인하고, 일정 수정 및 알람, 메모 등을 통해 항암 치료 과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당뇨길잡이는 당뇨병이 환자의 생활 습관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점을 활용한 앱이다.

앱을 처음 이용하는 환자들도 질환과 기본 정보를 설정한 뒤 혈당 수치와 식사 음식, 운동량을 입력해 직접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다. 또 인슐린을 주사하는 환자의 경우 알람 기능을 활용하면 바쁜 일상에서도 잊지 않고 주사 시간을 맞출 수 있다. 입력 정보는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20대 치질환자 '여>남'

연령별 비교땐 40대 최다

치질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여성 치질 환자가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6년간(2007~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액, 치열, 치루 등 치질로 진료를 받은 국내 환자가 2007년 74만 명에서 2012년 85만 명으로 매년 약 2.7%씩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치질로 진료를 받은 남성은 전체 환자의 약 52%로 남성과 여성의 수가 비교적 비슷했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치질 환자는 40대(17만9092명)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대(17만5712명), 50대(16만5772명), 20대(13만1875명) 순이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20대의 경우에는 여성(7만993명)이 남성(6만88.2명)보다 17%가량 많았다.

세부 질환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환자 수를 보이는 질환은 치핵으로 2012년 전체 치질 환자(84만5242명)의 80%(68만3명)를 차지했다.

특히 20대 연령대에서는 치핵 및 치열 환자가 남성(1280명)에 비해 여성(1436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교수는 "치질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지만 고령·만성 변비·임신,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 등이 치질을 일으킬 수 있다"며 "20대 여성이 많은 이유 역시 만성 변비·임신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장애아 국악치료 '보듬음'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진행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장애 아동의 국악 치료 활동을 지원하는 보듬음(音)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음악이 정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국인에게 친숙한 국악을 통해 장애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기업 (사)창가악회 와 함께 서울시 어린이병원의 발달장애아동 10여 명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11월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엄홍길휴먼재단 무료 인공관절 선물

60세 이상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환자 대상 무료수술 캠페인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받아 삶의 질 향상 도와

의학기술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 역시 늘고 있는데 신체 여러 부위에서 발병하는 퇴행성 질환 중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바로 무릎이다. 지금도 많은 노인들이 이런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다.

◆고령자의 무릎 통증 원인 '퇴행성관절염'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무릎뼈의 연골이 노화 혹은 외상 등의 이유로 점점 닳아 없어져 걷기가 어려우면서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퇴행성관절염은 연골이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에 따라 초·중·말기로 구분되는데 조기에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이 발생하고 중기에는 통증이 심해진다. 또 말기에 이르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며 무릎이 붓고 심지어 다리 모양이 O자형으로 휘기도 한다.

퇴행성관절염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80%에게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약물치료나 주사요법으로는 큰 효과가 없는 상황으로 퇴행성관절염이 말기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 된다.

◆적지 않은 '인공관절 수술 비용' 저소득층 환자에게 큰 부담

인공관절 수술은 다 닳아버린 무릎관절을 금속으로 만든 인공관절로 대체해주는 수술로서 통증을 없애주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확보해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케 한다. 즉 인공적으로 제작된 관절을 무릎 내에 이식하는 수술법으로 인공관절의 종류로는 운동 각도를 늘린 고굴곡 인공관절, 여성의 골격에 맞춘 여성형 인공관절, 개인 골격에 섬세히 맞춘 맞춤형 인공관절 등이 있다. 또 수술 후에는 정상적인 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까지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만 받을 경우 환자 부담금은 약 250만~300만원이며 양측 무릎을 모두 시행할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가 든다. 수술 후에도 2~3주가량의 입원 기간이 필요해 입원비와 간병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며 수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2배로 늘어난다.

◆무료 인공관절 수술 후원하는 '엄홍길 휴먼재단'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어도 일부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이처럼 비싼 수술비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방치해두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담당자에게 신청자의 어려운 사연과 증상을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엄홍길(사진)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건강한 무릎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신청창을 통해 신청

유방암 예방, 졸리가 최선 아냐

유전성보다 습관 요인 커
콩섭취·적정 체중 유지를

얼마 전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유전성 유방암 예방을 위해 가슴을 모두 절제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유방암 유전과 예방적 절제술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하지만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약 7% 정도이며 유전자가 있다고 해도 모두 유방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유전성 유방암이라 해도 유전적 소인 이외에도 같은 환경과 생활 습관 등에 노출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병인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 갑상선암센터센터장은 "대부분의 유방암은 유전성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며 "유전자의 대물림보다는 잘못된 습관의 대물림에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방암 줄이는 '착한 생활 습관'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착한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콩소콩 오색 채소, 과일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콩 속의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여성호르몬으로 유방암을 일으키는 에스트로겐을 조절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중국 푸저우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콩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방암 발생률이 0.75배 적었으며 이소플라본은 30% 정도의 유방암 감소 효과를 보였다.

또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체중이 증가하면 몸속에 퍼진 인슐린과 유사한 성장호르몬이 증가하고 이는 암세포 성장과 생존을 연장시킨다. 이와 함께 적절한 운동은 여성호르몬의 작용을 감소시켜 유방암을 예방한다. /황재용기자

건조한 가을 내몸도 '수분 주의보'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 환절기가 되면 특히 생겨나는 질환들이 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대기의 습도가 감소하고 이와 함께 우리 몸의 수분도 날아가 이런 질환이 발병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절기에는 평소보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가습기를 통해 실내 습도를 50~60%로 유지하는 등 건조한 주변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 하지만 가습기에 고인 물에서 발생하는 세균과 곰팡이는 자칫 잘못하면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가습기를 닦아준다.

가습기가 없을 경우에는 물수건을 걸어두거나 바닥이나 공기 중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환기를 해 실내 먼지를 없애고 오염된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 준다. 낮보다는 저녁에 환기를 시키는 게 좋다.

◆몸속은 물론 피부에도 보습

건조한 날씨에는 피부는 물론 몸속도 마르기 쉽다.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면 여러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염증을 없애는 것은 물론 콧속 보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건선이나 아토피 증세를 갖고 있다면 잦은 목욕, 때밀기, 사우나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안구 건조 및 눈 간지러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가운 물수건을 눈꺼풀에 대거나 인공 눈물을 사용해 안구의 수분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루에 최소한 1.5ℓ 이상, 컵으로 하루 8잔 이상(성인 기준) 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하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어주는 것이 좋으며 차가운 물보다 상온의 물이 우리 몸에 더 적합하다.

김종원 청심국제병원 내과과장은 "환절기에도 주변 습도와 몸속 수분 조절에 신경 쓰고 환기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metro entertainment E

섹시한 감성 매력 양파를 벗기듯 나올거예요

박지윤(31)이 섹시한 감성이 물오른 여성미를 더해 1년 개월 만에 가수로 돌아왔다. 싱어송라이터로 음악성을 보여주기도 했고, 연기자로도 외도했던 그는 본연의 매력을 ■■려 가요계 대표 여성 솔로 주자의 자리로 되돌아온다

미스터리로 돌아온 박지윤

◆데뷔 17년차… 제2전성기 꿈

1997년 만 15세의 나이로 가요계에 데뷔한 그는 17년차 가수이자 연기자로 내공을 쌓아왔다. 솔탄 프로듀서와 작업했고, 홀로서기로 숨은 재능을 드러내기도 했다. 벽테랑 연예계 스타인 그가 제2의 전성기를 꿈꾸며 손잡은 이는 윤종신이다.

"여러 연기자 회사와 일해보고 지난 7·8집에서 혼자 앨범을 만들며 활동해보면서 프로듀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러던 중 (윤)종신 오빠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시 또 기획사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 대부분의 기획사가 아이돌이나 인디 뮤지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뮤지션의 음악성을 중시하고 연기와 예능 활동도 병행 가능한 회사 분위기가 마음을 끌었죠."

'엠넷 슈퍼스타K' 심사위원이자 프로듀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 MC로 대중과의 접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찾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윤종신은 박지윤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했다. 섹시한 퍼포먼스와 감성은 물론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재능, 그만이 가진 특유의 매혹적인 목소리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신인이 아니니 한 번에 박지윤을 보여주기보다 1년에 걸쳐 조금씩 껍질을 벗겨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첫 싱글을 발표하고 앞으로 계절마다 새 싱글을 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에요."

2009년 발표한 7집과 지난해 내놓은 8집이 있었기에 이번 앨범의 반전이 더욱 극적인 효과를 준다.

"지금까지 중 가장 큰 만족감을 준 앨범이에요. 어렸을 때는 기획된 음악만 하다가 진짜 박지윤의 이야기를 하게 된 작품이죠. 질풍노도의 시기였지만 뭘 없어 하고 싶은 것들을 했었죠."

계절마다 새 싱글 계획
이번 앨범 가장 큰 만족
저 웨이트 운동 하다가
어느새 헬스홀릭 됐죠

◆'성인식' 고마운 곡이자 상처준 곡

이번 싱글 '미스터'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힙합 뮤지션인 프라이머리가 프로듀싱한 타이틀곡 '미스터리'와 윤종신이 만든 '목격자' 등 2곡이 수록됐다. '미스터리'는 레트로풍의 팝 넘버로 박지윤 특유의 음색이 진하게 묻어나는 곡이다. 비음에 드는 남자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에 대해 궁금해하는 여자의 심리를 그린 가사가 인상적이다.

앨범 출시에 앞서 공개한 티저 이미지에서 그는 등이 깊게 파인 드레스 차림으로 섹시한 매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30대 여성미와 캐서너블하고 균형한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난 앨범에서 날것의 심플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따라 하고 싶은 것들을 담고 싶었어요."

평소 운동에는 관심이 없던 그는 "태어나서 가장 열심히 운동했다.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5개월간 매일 2~3시간씩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다 보니 어느새 헬스홀릭이 됐다"고 말했다.

만 18세던 2000년 발표한 '성인식'은 섹시한 여성을 표현하는 대표곡으로 여전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싸이는 이 곡을 시작으로 자신의 콘서트에 여 가수 퍼러디를 이어왔고, 원더걸스의 선미는 솔로 데뷔곡인 '24시간이 모자라'를 '제2의 성인식'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성인식'은 제 인생에 가장 큰 인기를 누리게 해준 고마운 곡이지 가장 큰 상처를 준 곡이에요. 지금은 감당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 곡 자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그 곡 때문에 생긴 이미지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박지윤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해준 고마운 곡이죠."

그는 "앞으로 숙제는 '성인식'을 뛰어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며 "'박지윤=성인식'이라는 도식에서 '성인식'을 대신할 곡을 1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사진제공/미스틱89 디자인/박은지

star bag

'그 해, 겨울' 합동 콘서트

가수 박정현(왼쪽)과 밴드 YB가 합동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들은 12월 23~24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013 YB+박정현 그 해, 겨울'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연다. '그 해, 겨울'은 박정현이 2011년 성시경, 지난해 김범수와 각각 무대를 열었던 듀엣 공연 브랜드다. 이번에는 발라드 가수가 아닌 록밴드와 무대를 꾸며 관심이 쏠린다.

설경구·이정재와 한지붕

배우 최민식이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최민식은 다양한 장르에서 선 굵은 연기로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이바지한 최고의 배우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영화에 대한 열정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씨제스에는 설경구·이정재·박성웅·송지효·김혜정·JYJ 박유환 등이 소속돼 있다.

팬 사인회에 800명 운집

걸그룹 티아라가 팬사인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19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사옥 마당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800명의 팬들이 모였다. 티아라는 이른 아침부터 와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앞으로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 사인을 받지 못한 팬들은 멤버들과 손뼉을 마주치며 아쉬움을 달랬다.

'내년에는 꼭 3집…' 공연

장기하와 얼굴들이 12월 30~31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내년에는 꼭 3집 내겠습니다"라는 이색 타이틀로 단독 공연을 개최한다.

소속사에 따르면 장기하와 얼굴들은 올해 발매하려던 3집이 예능 프로그램과 시트콤 출연 등 멤버들의 개인 활동으로 인해 연기돼 팬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

<日 하네다 공항 최다 인파>

"배용준·김현중 보자" 5000명 몰렸다

용준 한류 10주년 대상 2관왕 현중 솔로아티스트부분 수상

배용준과 김현중이 일본 한류 10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일본 방송사 및 제작사·매니지먼트사 등 현지 업체들이 발족한 한류 10주년 위원회 주관으로 19일 지바 마쿠하리 멧세 국제 전시장에서 열린 '한류 10주년 대상'에서 배용준은 대상과 드라마 대상 남자 부문 그랑프리, 김현중은 뮤직 대상 남자 솔로 아티스트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 배용준과 김현중의 이름이 호명되자 현장에 있던 5000여 명의 팬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쏟아냈다.

김현중은 "노래와 춤, 연기를 통해 한류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7월 국내에서 발매한 세 번째 미니앨범 수록곡 '유어 스토리'와 '언브레이커블'을 부르며 행사장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2관왕을 차지한 배용준은 "오늘 이 자리는 좋아하는 후배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라며 "이런 뛰어난 재능을 가진 후배들이 있기에 한류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 같다"는 소감을 전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일본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한 한류 10주년 대상은 대중의 평가만으로 현재의 한류를 이끌고 있는 최고 아티스트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시상식 당일 오전 배용준과 김현중의 입국 현장에는 하네다공항 신국제선 청사 개장 이래 최다 인원인 5000여 명이 몰려 이들의 인기를 입증했다. 사설 경호원과 경찰 등 300여 명이 긴급 배치돼 안전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취재를 위해 현장을 찾은 일본 매체 관계자는 "한류 열풍의 시작이었던 2004년 '겨울연가' 프로모션차 배용준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5000명의 팬들이 마중을 나와 하네다공항을 마비시키는 진풍경이 연출된 바 있다"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인기의 중심에 서 있는 배용준과 신한류 열풍의 선두 주자 김현중의 방문에 열도가 들썩이고 있다"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배용준이 입국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19일 오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입국장에는 5000여 명의 팬과 취재진이 몰렸다. /키이스트 제공

서태지와 아이들 '너에게' 첫 리메이크

'응답하라 1994' 3회 예고편서 소개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가 최초로 리메이크돼 화제를 모은다.

19일 케이블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 2회 방송 직후 나온 3회 예고편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2집 수록곡 '너에게'가 흘러나왔다. '응답하라 1994'는 1994년을 배경으로 추억과 공감을 자극하는 드라마로 당시 대중문화 대표 코드였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인지 팬들의 뜨거운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엄격한 저작권 관리로 유명한 서태지의 음악은 한 번도 자신과 관련 없는 콘텐츠에 사용된 적이 없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신원호 PD는 '너에게'의 가사 내용이 드라마와 잘 맞을 것 같아 서태지 측과 어렵게 접촉 후 제안을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흔쾌히 승낙을 해줬다"고 전했다.

신 PD는 "'응답하라 1997'에서 핑클 '화이트'와 '고백'이 러브 테마곡으로 쓰인 것처럼 이번에는 '너에게'가 러브 테마곡으로 사용돼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답하라 1997' 제작진이 다시 뭉쳐 만든 '응답하라 1994'는 각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신촌 게스트하우스에 모여 벌이는 에피소드를 그린다. 농구대잔치, 서태지와 아이들 등 당시 신드롬을 일으킨 사회적 이슈와 패션, 음악 등을 재현한다.

18일 방송된 첫 회는 평균 시청률 2.6%, 최고 시청률 3.8%(닐슨코리아)를 기록하며 케이블·위성·IPTV 통합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유순호기자

싸이 에어로스미스와 협업

월드스타 싸이(사진 왼쪽)가 전설적인 밴드 에어로스미스의 보컬 스티븐 타일러(오른쪽)와 신곡에서 협업한다.

미국 빌보드지 인터넷판은 최근 싸이가 이탈리아 남성지 루오모 보그와 가진 인터뷰를 토대로 "싸이가 신곡에서 에어로스미스와 타일러와 한 팀을 이룬다"고 보도했다.

싸이는 이 인터뷰에서 "중학교 때 에어로스미스가 '크레이지'와 '어메이징'을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말 그대로 울었다. 그들은 내 인생의 롤모델인데 지금 나는 스티븐 타일러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싸이는 다음달 신곡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며 "많은 미국 아티스트와 작업하고 있다"고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에어로스미스는 1970년에 결성된 록밴드로 전 세계에 1억500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는 등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미국 밴드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스티븐 타일러는 할리우드 스타 리브 타일러의 아버지로도 유명하다. /유순호기자

김재중 보이스와 용준형 랩의 만남

최정상의 남자 아이돌 JYJ와 비스트가 뭉쳤다.

29일 첫 솔로 정규앨범을 출시하는 JYJ의 김재중(사진)이 수록곡 '돈 워리 어웨이'에서 비스트의 용준형과 호흡을 맞췄다. 아이돌 그룹의 대표 주자인 이들이 공동 작업을 한 것은 처음이라 화제를 모은다. 각각 막강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이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에 팬들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김재중은 자신의 앨범은 물론 JYJ 앨범에서 프로듀싱과 작사·작곡 등을 맡아 음악성을 인정받아왔다. 용준형은 팀을 대표하는 프로듀서이자 래퍼로 '섀도우' '아임 쏘리' '픽션' 등 비스트의 대다수 히트곡과 앨범 수록곡을 만들어왔다. 용준형은 '돈 워리 어웨이'에서 랩 피처링을 맡았다.

김재중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용준형의 개성 있는 랩과 신나는 댄스 비트, 김재중의 섬세한 보이스가 어우러져 트렌디한 곡을 완성했다"고 전했다.

'햇살 좋은 날'을 선공개한 김재중은 23일 '버터플라이'를 추가 선공개하고 29일 정규앨범 'WWW'를 발표한 후, 엔, 와이 와 선곡을 공개한다. 다음달 2~3일 삼성동 코엑스, 15~16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2013 김재중 퍼스트 앨범 아시아 투어 콘서트'를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일제강점기 농구 드라마 공감 '덩크'

'빠스껫 볼' 88만원세대·엄친아 캐릭터 등장
"1930~40년대와 현대 놀랄만큼 닮았더군요"

케이블 tvN 새 월화드라마 '빠스껫 볼'(21일 첫 방송)이 시대를 초월한 공감 코드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빠스껫 볼'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극에 달한 1930~40년대를 배경으로 우리 민족이 일본과 겨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스포츠뿐이었던 당시 농구가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줬던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시대에 등장하는 인간 군상은 현대와 비교할 때 절묘하게 닮아 있어 눈길을 끈다.

주인공 강산(도지한)은 88만원 세대의 전형이다.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움막촌에 살면서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휴학을 계속해야 하는 고학생으로 신분 상승의 꿈을 꾸며 농구에 몰두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일제 치하에 조선인으로 태어나 성공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을 알고 도박 농구에 발을 들이게 된다.

또 다른 주인공 민치호(정동현)와 최신영(이엘리야)은 각각 시대를 대표하는 엄친아와 엄친딸이다. 민치호는 평양에서 방직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아들이자 명문 사학인 연희전문학교 농구부의 에이스이며 최신영은 거대 방적회사 오너의 딸이자 일본 유학을 마치고 온 신여성이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꿈꾸는 강산은 자신을 최고 명문 경성제국대학교 출신으로 속이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에 접어들고, 국민적 인기의 농구스타이자 엄친아로 살아가던 민치호는 자신의 인기가 일본 제국주의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큰 변화를 겪는다.

시대를 초월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인공들의 사연은 농구 코트의 불꽃 튀는 승부에서 극대화되며 새로운 시대극의 묘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드라마 '주노', '도망자 플랜 B'에 이어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곽정환 PD는 "작품을 준비하면서 일제강점기와 지금 세대가 놀랄 만큼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시청자들이 감동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 see Mr. Grey. 약속 잡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Good morning. Dr. Cooper's office. May I help you?
B 쿠퍼 박사와 약속을 잡고 싶은데요.
A 개인적인 면담을 잡고 싶으세요?
B Yes. Can I come in tomorrow?
A I'm afraid not. Sorry. His appointment book is filled for the next couple of days.

정답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 see Dr. Cooper. / Would you like to arrange for a personal interview?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 book
출처: New English 900 Vol.2

생생영어팁

▶ It's a date.
그럼 약속 정한 겁니다.

이 말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난 다음 자, 그럼 우리 이 때 만나는 걸로 한 거야 라고 마무리하는 뜻이 자는 말입니다. date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연인 사이 같은 로맨틱한 관계의 만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date에는 '만남 약속'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표현은 사무적으로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 친구끼리, 이웃이나 동료 사이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일반동사 과거시제

▶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행동을 얘기할 때 쓰여 '~했다'를 의미하고, 주어에 상관없이 과거형 동사를 써서 동사 뒤에 -ed를 붙인다.

call → called	play → played	clean → cleaned
walk → walked	talk → talked	finish → finished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익히.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cleaned my room this morning.
전 오늘 아침 제 방을 청소했어요.
2 Sunny lived in London last year.
써니는 작년에 런던에 살았어요.
3 My girlfriend and I saw a movie.
제 여자 친구와 저는 영화를 봤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Guitarist Carlos Roldan ______ his newest music at a fund-raising concert in Madrid last month.
(A) performed (B) performs
(C) performing (D) will perform

02 While our representatives try to reply to all e-mails ______, responses may be delayed by weekends and public holidays.
(A) prompting (B) promptly
(C) prompts (D) prompt

01 기타리스트 카를로스 롤단 씨는 지난달 마드리드에서 열린 기금 마련 콘서트에서 자신의 최신 음악을 연주했다.
해설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last month)이 있으므로 과거시제인 (A) performed가 정답이다.
어휘 fund-raising 기금 마련 perform 공연하다, 연주하다
정답 (A) performed

02 우리 직원들이 모든 이메일에 신속하게 답하려고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로 인해 답장이 지연될 수 있다.
해설 while이 이끄는 부사절 안에 주어와 동사가 있고 목적어까지 갖춘 완전한 문장이므로 동사 reply를 수식하는 부사 (B) promptly를 써야 한다.
어휘 representative 직원 response 응답 promptly 즉각적으로
정답 (B) promptly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6. 의견 제시하기

주제별 표현

학교

make new friends 새 친구를 사귀다
after school activities 방과후 활동
wear a school uniform 교복을 입다
undergraduate 대학생
take online classes 온라인 강좌를 듣다
attend a class 수업에 참석하다
transfer to ~으로 편입하다, 전학가다
earn credits 학점을 따다
graduate student 대학원생
enroll in summer classes 여름 학기 등록하다

직장

job requirements 자격 요건
telecommuting 재택근무
qualification for the job 직업에 필요한 자격
deal with problems 문제를 처리하다
work hours 근무 시간
transportation fees 출근 비용, 교통비
educational support 교육 지원
job applicant 취업 지원자
be suitable for ~에 적합하다
be[get] promoted 승진하다
lay off employees 직원을 정리해고하다
special benefits 특별 혜택, 복지
high-paying job 고수입 직업
retirement 은퇴

뇌졸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여성은 70대, 남성은 60대입니다. 해당 연령대의 어르신들은 일교차가 큰 날 외출이니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4					2	
		1		4	6			
	7				5	8		
			4	1				
5								7
				8	2			
		2	3				7	
			6	7		5		
	3					4		9

5	1							
							7	
4		9	3	8			5	
1	7							
		2	8		6	1		
							8	4
	3			5	1	9		8
	2							
							2	6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보누스
한사 스도쿠 플래티넘 (카이들 리오스 지음)

잠자리 변천사

임경선의 모놀로그

대형 가구 매장에 가면 당연한 것임에도 늘 놀라는 광경이 있다. 침실의 침대가 무조건 킨 사이즈 더블침대라는 점. 머리맡의 디자인이 조금씩 다를 뿐, 어른들의 침실에선 마치 꼭 저렇게 붙어 자야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늘 4인용 석쇠여 있었다.

결혼 전에 주로 새로 마련하는 가구이니 신혼부부들이 한시라도 떨어져 있기 싫은 마음은 이해한다. 오랜 세월 싱글침대에서 잤던 사람들에게는 더블침대가 주는 환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사정이 달라진다. 아내에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남편, 천사 같은 표정으로 남편의 널따란 가슴에 코를 묻고 자는 아내는 오래 못 간다.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귀가가 늦으면 지레 알아서 소파로 가서 잔다. 코골이나 숙취 냄새로 배우자의 숙면을 망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사랑의 이름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잠자리는 또 한 번 뒤집힌다. 남편은 아침 출근을 지장받지 않기 위해 작은방에서 자고 아기와 엄마가 안방을 차지한다. 이때 나는 아예 더블침대를 처분하고 아이가 뒹굴기 안전하게 바닥에 요를 깔고 잤다. 그렇지 않아도 더블침대는 부부의 체중 차이로 매트리스가 망가져서 허리가 아팠다. 그 즈음부터인가 여행 갈 때도 더블침대 대신 트윈 침대로 예약했다. 로맨틱보다 몸이 편한 게 우선이었다.

어느덧 세월은 더 흘러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를 잘 때 떼어놓기로 했다. 이대로 뒀다간 영영 같이 잘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도 이젠 좀 남자랑 자고 싶다"고 웃으며 선언했다. 아이의 싱글침대를 사면서 부부의 잠자리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가구 매장의 침대들을 그렇게 둘러봤는데 예전엔 어떻게 덩치 큰 성인 둘이 퀸 사이즈 더블침대에서 1mm나 등을 꼭 맞대고 잤을까 싶다. 큰 마음 먹고 킹 사이즈 침대를 살까 했는데 그건 또 너무 거창하고 웅장해 보였다. 그때 남편이 깔끔한 선택은 제시했다. 심플한 싱글침대 두 개를 붙여서 쓰자고. 물론 이불도 두 개다. 결과는 대성공. 곁에 있지만 독립적이고 서로에게 걸리적대지 않는 우리와 꼭 닮은 잠자리였다. /칼럼니스트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취직도 안 되고 애인도 안 생겨 결국엔 성과 거두니 낙심 말 것

작성자: 무월 남자 84년 4월 4일 (음력) 오후 2시

Q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4년간 도전했지만 번번이 떨어져서 현재 취업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여자친구를 제대로 사귄 적이 없습니다. 혼자 살 팔자 같은데 최근엔 스님이나 신부가 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요.

A 직업에 자묘(子卯) 형살이 있는데 이는 살타래가 얽히고설킨 것처럼 추제 풀기 어려워 고생끝에 낙이 온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일찍이 좋은 직업을 가져도 자기가 싫어 직장을 버리는 경우에도 속하지요. 목(木) 기운의 형살이라 간담이 무력해 늘 피로감을 떨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뛰는 운동은 필수입니다. 태산 속 진흙 처럼 함목으로 쓸려 초조함과 열등감에 시달릴 때가 많으니 허상보다는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는 신념을 가지십시오. 백호(白虎)는 부부 궁에 들어 닥칠 곤산이 큽니다. 취업한 뒤에 여자를 만나도록 하세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여한 발복이 있으며 종래는 성과를 거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생 안 좋은 일만 계속되는데 남보다 더 노력해야 하는 팔자

Anna

Q 저는 대체 어떤 사주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요. 살아온 25년 동안 길한 일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큰 것, 작은 것 가릴 것 없어 툭하면 흉사가 터졌습니다. 잘 좀 봐주세요.

A 생년월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25년이라면 감산이 두 번 바뀐 세월입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정말 흉사가 많았던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네요. 사주가 형충살(刑沖殺)을 맞고 운에서도 흉액이 낄 경우, 공망(空亡)을 맞고 재관(財官)이 사묘절(死墓絶) 단절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 안 좋다고 합니다. 개인의 잘못도 있겠으나 인연법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니 남보다 좀 더 노력해야 하는 사주팔자입니다. 호랑이는 피할 수 있어도 사주팔자는 피할 수 없다고 했으며 옛날부터 '팔자가 기박하다', '팔자 소관대로 살아야 한다', '팔자는 속일 수 없다'는 자조감에 젖은 말들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칸의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1일(음 9월 17일) 김혁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움직이는 일은 신중할 것. **60년생** 평판이 좋아질 경사 생긴다. **72년생**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드는구나. **84년생** 창조적인 일엔 큰 성과 있다.

소 **49년생** 이웃에게 위로할 일 생긴다. **61년생** 최선을 다했으면 웃남을 한탄하지 마라. **73년생** 뜻속이 없는 일로 분주한 하루. **85년생** 도와줄 편 의끈해야 효과.

호랑이 **50년생** 시기하면 일을 지체한다. **62년생** 청벽은 뜻밖의 행운을 부른다. **74년생** 친구와의 돈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 **86년생** 방심하면 한숨 나오는 일이 터진다.

토끼 **51년생** 자손에게 영따라 경사 생긴다. **63년생** 좋고질 편 상대 연상 고려하라. **75년생** 위험한 계획은 위험 부른다. **87년생** 상사에게 어단맞을 일 만들지 마라.

용 **52년생** 게으른 자녀에겐 큰일 맡기지 마라. **64년생** 회담의 성패는 첫마디가 가른다. **76년생** 원하는 소식은 조금 늦어질 듯. **88년생** 토라진 연인에겐 선물이 약.

뱀 **53년생** 찡그리면 들어오던 복도 달아난다. **65년생** 말이 많으면 실수한다. **77년생** 계획대로 일이 풀려 여유 넘친다. **89년생** 중요한 약속 잊지 않도록 신경 써라.

말 **42년생** 고혈압 환자는 약 챙겨라. **54년생** 기다리던 자금은 제시간에 도착한다. **66년생** 눈앞의 이익 따라 움직이면 소탐대실. **78년생** 일을 앞세우면 축 처진다.

양 **43년생** 운동도 과하면 독이 된다. **55년생** 연중된 일로 에너지 소모하지 마라. **67년생** 목표 달성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79년생** 배움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원숭이 **44년생** 자중이 큰 약속은 보류하라. **56년생** 얼청객은 스스로 피한다. **68년생** 중책 맡으나 어깨가 무겁다. **80년생** 잠시의 고민이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닭 **45년생** 독설은 잔칫집에 고춧가루 뿌린 격이다. **57년생** 준비 과정에 걸림돌 없는지 잘 살펴라. **69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81년생**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하라.

개 **46년생** 몸의 변화를 잘 체크할 것. **58년생** 우유부단은 자신이 유리하다. **70년생** 보수적인 배우자와 티격태격. **82년생** 눈에 번쩍 띄는 귀중한 물건 얻게 된다.

돼지 **47년생** 마음이 편안하니 몸도 편안하다. **59년생** 새로운 일보다 현상 유지하라. **71년생** 어떤 술자리라도 오래하면 후회한다. **83년생** 상사의 말에 토 달지 마라.

최준석 또 한방…두산 "삼성 나와라"

LG 3승 1패로 꺾고 5년만에 한국시리즈행
4차전 승리투수 유희관 플레이오프 MVP

두산 베어스가 가을 본능을 앞세워 한국프로야구 새 역사 창조에 도전한다.

두산은 2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LG와의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5-1로 승리하며 5년 만에 한국시리즈 티켓을 따냈다. 준플레이오프에서 3승2패로 힘겹게 플레이오프에 오른 두산은 시리즈 전적 3승1패로 상승세를 타며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노린다.

삼성과 두산의 한국시리즈는 7전4승제로 24일 오후 6시 대구구장에서 1차전이 열린다.

페넌트레이스 4위로 포스트시즌을 시작한 팀이 정규시즌 상위팀과 치른 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를 거쳐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는 것은 두산이 역대 다섯 번째다. 1990년 삼성 라이온즈, 1996년 현대 유니콘즈, 2002년 LG 트윈스, 2003년 SK 와이번스가 새 역사에 도전했지만 모두 정규시즌 1위 팀을 넘지는 못했다.

플레이오프 4차전 20일

■잠실

LG	000	000	100	1
두산	010	000	13X	5

두산은 가을 야구를 하면서 더욱 단단해진 뚝심으로 최초의 기록에 도전한다.

두산은 이미 5전3승제 바뀐 준플레이오프 4위 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진출이라는 새 기록을 세웠다. 과거 네 팀이 한국시리즈에 진출했을 당시 준플레이오프는 3전2승제였다.

두산은 2001년 우승 이후 준우승만 네 차례 했지만 2000년대 들어 올해까지 14시즌 동안 10차례나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강팀이다. 체력적으로 지쳐있을수록 끈기가 살아나는 특유의 팀워크를 앞세워 삼성과 어떤 경기를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두산 베어스 최준석이 20일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4차전 8회말 대타로 나와 홈런을 치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실책 또 실책 LG 자멸

이날 4차전에서 두산은 상대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점수를 쌓았다.

LG는 1-2로 뒤진 8회말 마지막 반격을 위해 마무리 봉중근을 출격시켰지만 두산의 기세를 누르지 못했다. 두산은 대타 최준석이 우월 솔로홈런을 때렸고, 오재일-오재원의 연속 장타와 민병헌의 적시타를 보태 5-1로 달아났다.

11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오른 LG는 지나친 긴장감으로 인해 플레이오프에서 실책 7개로 자멸했다. 두산 선발 유희관은 7이닝 6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며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양희영이 서희경보다 더 질겼다

연장접전 끝 LPGA 첫승

한국인 여자 골퍼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승전보를 전해왔다.

양희영(24·KB금융그룹)은 안방에서 생애 최초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우승의 영광을 맛봤다. 20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6364야드)에서 열린 LPGA투어 하나·외환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서희경(27·하이트진로)과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2008년 LPGA 진출 이후 준우승만 네 차례 기록하며 정상의 문턱을 두드려왔던 양희영은 한국에서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상금 28만5000달러(약 3억원)도 손에 쥐었다. 양희영은 2010년 최나연(26·SK텔레콤) 이후 펑샨샨(대만)·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등 외국 선수에게 뺏겼던 이 대회 트로피를 다시 찾아왔다.

양희영은 이날 마지막 라운드에서 17번홀까지 서희경에 1타 뒤졌지만 18번홀에서 극적인 버디를 챙기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연장 첫 번째 홀에서 양희영은 4m 버디 퍼트를 넣어 파에 그친 서희경을 따돌렸다. 서희경은 LPGA 투어에서 지금까지 네 차례 연장전을 치러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징크스를 이어갔다.

양희영이 20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에서 열린 LPGA 투어 하나·외환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트로피에 입맞춤하고 있다 /KLPGA 제공

세미교포 미셸 위(24·나이키골프)가 김세영·페테르센과 함께 3언더파 285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박인비(25·KB금융그룹)는 최종합계 이븐파 216타로 공동 28위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하는 박지은(34)은 23오버파 239타로 출전 선수 78명 가운데 77위로 경기를 마쳤다.

◆이나리 폭우 덕 행운의 우승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후지쓰 레이디스 대회에 참가한 이나리(25)는 같은 날 지바현의 도큐 700 골프장 서코스(파72·6635야드)에서 열린 마지막 라운드에서 행운의 우승을 따냈다.

마지막 3라운드가 폭우로 취소돼 1·2라운드 합계 6언더파 138타로 단독 1위였던 이나리에게 우승이 돌아갔다. 이나리는 올해 일본 무대에서 2승을 따냈다.

◆강성훈 KPGA 2주연속 정상

이날 충남 천안 우정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코오롱 제56회 한국오픈 골프대회에서는 강성훈(26·신한금융그룹)이 정상에 올랐다. 지난주 최경주 CJ인비테이셔널에서 정상에 오른 강성훈은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3억원을 받았다.

/유순호기자

'빅토리노 만루포' 보스턴 6년만에 WS 진출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가 6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보스턴은 20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6차전에서 5-2로 승리하고 시리즈 전적 4승2패로 리그 챔피언에 올랐다. 이로써 보스턴은 LA 다저스를 꺾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4일 펜웨이파크에서 월드시리즈 1차전을 치른다.

보스턴은 2004년 월드시리즈에서 세인트루이스를 4전 전승으로 누르고 86년 만에 '밤비노의 저주'를 끊은 바 있어 두 팀의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AL 다승 1위(21승)를 차지한 디트로이트의 선발 맥스 슈어저의 구위에 눌려 고전하던 보스턴은 7회 셰인 빅토리노가 결승 만루홈런을 때려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9회 등판한 보스턴의 일본인 마무리 투수 우에하라 고지는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이번 시리즈에서 1승 3세이브 평균자책점 0을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손연재 전국체전 4년연속 정상

전국체전에 서울대표로 출전한 손연재(19·연세대)가 전국체전 4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손연재는 20일 인천대 체육관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일반부 리듬체조에서 총 63.750점을 받아 2위 김윤희(55.200점)와 3위 이다애(55.050점)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사진은 손연재가 리듬체조 리본경기에서 화려한 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전적 20일

서울	0	2	울산
제주	0	1	대전

케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2011-서울강남-0163
1566-7979
대출!!!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거절된적 있으십니까?
100만원 누구나! 무상담대출
저도 되네요!
완전 쉽던데요!
정말 빠르고
편리하네요!